



윤선희 졸업생

소속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위 : 수간호사(직급 부장)



Q1. 졸업 후 지금까지의 주요 경력을 소개해 주세요.

졸업과 동시에 서울성모병원에 입사해 현재까지 약 25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Unit Manager로 승진했으며, 현재는 부장으로 병동 운영과
간호 인력 관리, 환자안전 및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간호사로 근무하며 특히 기억에 남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책임감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모범직원상을 수상했으며,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서울특별시의료원 의료지원에도 참여했습니다.
이후 의료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병원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Q3. 임상뿐 아니라 연구와 새로운 분야에도 꾸준히 도전해 오셨다고요.

간호부에서 여러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했고,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며 미국 시카고 단기연수에도 참여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법인에서 주관하는 활동을 통해 임상 현장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반 제품
개발과 박람회 출품에도 참여했습니다.

Q4. 전문단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병원중환자간호사회와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 활동했으며,
2018년부터 병원신경계간호사회에서 정보이사와 회계이사를
거쳐 현재 제2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임상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간호교육과 학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5. 지금의 선배님께 광주여자대학교는 어떤 의미인가요?

모교에서 배운 지식과 가치, 교수님과 동료들에게 받은 도움은 제가 오랜 시간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광주여대 간호학과 졸업생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며, 현재 동문회장으로서 학교와 졸업생을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Q6.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임상뿐 아니라 연구, 봉사, 학회 및 전문단체 활동 등 다양한
경험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전문성과 강점을 가진 간호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